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2년
2023년 12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7년 제 289 호

창교절 유시문

창종정신 이어 미래 희망 제시



종령 범공 대종사

오늘은 한국현대 밀교의 개척자이신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정통밀교종단인 총지종을 창종하신지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밀교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현실 속에서 정법이 구현되고 대승의 원력으로 개인과 세계를 구제할 근본이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은 밀교의 가르침을 진실하고 틀림없이 세상에 전하는 일이라고 믿으신 종조 원정대성사께서는 1972년 12월 24일 총지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창종 전 원정대성사께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지금의 정심사에 침거하며 수행 중이실 때, 룡정, 환당, 청암, 현수, 불멸심, 법장화, 대자행, 복지화 등 여러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구할 때 원정대성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일은 무상하니 생한 것은 멀하고, 나타난 것은 변하는 법이다. 인연이

다하면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전법은 멀하고 후법은 생기는 것이 불법의 요체이다.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미움을 담지도 말라. 법계는 어려움으로 복을 주고, 수행하는 이는 재앙을 스승으로 삼는 법이니 이 일이 후에 크게 좋은 길을 열어준다고 믿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원정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과거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원정대성사께서 시대에 따라 세상의 세의 방편이 달라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화방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버리고 종단의 최우선 과제를 교화의 활성화에 두고 시의 적절한 교화방편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창교절을 맞이하여 스승님과 교도들이 다 함께 원정대성사님의 창종의 뜻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지은덕과 종조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용맹정진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됩니다.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범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합시다.

총기 52년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종령 범공 합창

불살생 가르침으로 공생하는 지구촌 건설

‘제23차 한중일불교교류 회의 한국 봉은사 대회’ 성료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 회의 한국 봉은사 대회’가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강남 봉은사와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종단 대표로 총무부장 룡경 정사, 재무부장 승원 정사, 밀인사 주교 덕광 정사, 수인사 주교 범상 정사, 실지사 주교 서강 정사, 시법사 주교 혜광 정사, 단음사 주교 남혜

정사가 참석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단장으로 한국불교 지도자 130여 명이 동참했다. 또 중국불교를 대표하여 중국불교협회 회장 연각 스님을 단장으로 90여 명의 대표단이, 일본불교계에서는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의 이사장 타케 카쿠조 스님을 단장으로 55명 등 약 300여 명의 한중일 불교지도자들이 참

여했다.

한중일 대표들은 불교도가 중심이 되어 삼국의 화합과 국제적 인류공생을 강조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차기 일본대회에 대한 기본 합의를 이루며 연대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대회 이틀째인 7일 오전 10시부터는 전쟁종식과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평화기원대회’를 봉은사에서 봉행했다.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모

니홀에서 ‘4차 산업시대 불법홍포를 위한 삼국불교도의 역할’ 국제학술강연회도 진행됐다. 한국종단협 부회장 범명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성 스님, 일본 기무라 세이민(교토대 연구원) 스님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강연회에서는 총지신문 김태원 칼럼니스트가 한국과 종단을 대표해 발표를 했으며, 이어 각 국 대표들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관련기사 8면>

참석자들은 국제학술강연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조화와 평화의 세계를 이룩하고, 불법의 진리와 생활 속 수행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과 불살생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모두가 공생하는 지구촌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박재원 기자



한국밀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진언수행 확대방안 모색

한국밀교학회(회장 효명 정사) 세 번째 추계 학술대회가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을 기념해 ‘밀교의 수행과 상담심리’를 주제로 지난달 17일 진각종 총인원 강당에서 열렸다. 2면으로 이어짐

종/조/법/어

인간은 불완전하다. 복도 불완전하고 지해도 불완전 하다. 부처님만은 완전한 까닭으로 사람이 귀의 하느니라.

지면안내

5면 이달의 왕생법문

6면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8면 한중일불교우호교류학술대회

10면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㉔

총기 52년 창교절 기념법회 안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2년 12월 24일(일)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내년 춘계 학술대회 부산 정각사 개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행장 ‘고찰’

1면에서 이어짐

이날 행사에는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한국밀교학회 회장 효명 정사를 비롯한 한국밀교학회 임원진과 학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종단에서는 밀교학회 부회장이자 총무부장 록경 정사와 범수연 전수(총지사), 승원 정사(벽룡사 주교), 묘원화 전수(벽룡사), 덕광 정사(밀인사 주교), 보현 전수(밀인사), 해경 정사(시범사 주교)가 동참했다.

학회장 효명 정사는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밀교 진언수행의 의미와 수행법을 살펴보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 진언수행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인 정사는 축사를 통해 “밀교는 진언수행을 궁극적인 깨달음과 성불로 가기 위한

최상승의 방편이자 중생구제 대승도를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무명을 밝히고 지혜가 일어나기를 서원한다.”고 전했다.

도진 정사는 이어진 축사에서 “한국밀교학회가 회당사상, 밀교사상,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단체인 만큼 회당대종사 열반6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불교학과 밀교학이 발전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6가지 주제로 △강향숙 연구교수(동국대)가 ‘진언수행의 역사와 전개에 대한 고찰’ 발표, 심준보 교수(한국외대) 논평, △수각 정사(진각종)가 ‘육자진언 관행의 원리와 실제’ 발표, 범경 정사(진각종) 논평, △혜안화 전수(진각종)가 ‘회당대종사의 염송수행과 선의 쌍수에 대하여’

발표, 성제 정사(위덕대) 논평, △보성 정사(위덕대)가 ‘회당대종사의 시대정신과 현대적 적용’ 발표, 한상길 부교수(동국대 불교학술원) 논평, △강대현 연구교수(위덕대)가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나타난 진언다라니 고찰’ 발표, 정성준 교수(위덕대) 논평, △이충현 연구교수(동국대)가 ‘가족공동체의 측면에서 본 심리치료기제로서 共業 개념의 적용’ 발표, 고정혜(K선명상교정연구소) 논평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밀교학회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행장을 주제로 하는 내년 춘계 학술대회를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밀교학 학자를 중심으로 한 발표자들이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과 행장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박재원 기자

“생전 큰 원력 자비광명으로 나투시길”

지난달 29일, 전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 입적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종단협) 부회장 및 이사 등 임원들이 오는 1일 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전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제 33, 34대 총무원장)의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조계사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범명 스님 등 종단협 부회장을 비롯해 50여명이 동참했다. 종단협 임원들은 자승 스님의 영단에 헌화와 헌향을 하고,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어 종단협 임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

고 조의를 표했다.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추도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시며 평생을 전법에 이바지해오신 자승스님의 입적에 불교총지종은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생전 스님의 큰 원력이 이 땅에 자비광명으로 나투시어 세상 곳곳에 가득 비추어 주시기를 서원한다.”고 전했다.

자승 스님의 장례는 조계종 ‘종단 장례에 관한 령’에 따라 5일장으로 진행되며 영결식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장의위원장으로 종단장으로 엄수된다. 또 다비는 이날 오후 자승 스님의 재적본사인 제 2교구본사 화성염주사에서 봉행된다.



한국불교수행단, 중국방문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사업 일환으로 서강 정사(실지사 주교)와 남해 정사(단음사 주교)를 비롯한 24명의 한국불교수행단이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간 불교문화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한국불교 수행단은 중국 광저우 하원 연암 육조고사에서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참선실참, 한중 선서에 교류, 지역명소인 만록호 풍경구 탐방 등의 시간을 가졌다.

‘55주년 군승의 날’ 법회

제 55회 군승의 날을 맞아 군불교 발전을 통해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서원했다. 지난달 29일 국방컨벤션에서 봉행된 제 55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는 종단 대표로 총무부장 록경 정사를 비롯해 전·현직 군승과 불자 등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군포교 최일선에서 정진중인 군승을 격려하며 군불교 발전과 청년불자 양성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 제 209회 이사회

단음사 주교 남해 정사, 감사 연임

학교법인 관음학사 제 209회 이사회(이사장: 우인 정사)가 지난달 9일 오후 2시 종립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개최됐다.

이사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재적 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0일 임기가 만료된 감사 남해 정사(단음사 주교)에 대해 만장일치로 연임을 의결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이사들은 2023학년도 법인회계 1차 추경예산과 방송실 방음문 설치, 여직원 화장실 개선, 운동장 음향시설

설치. 그리고 학부모 민원전화시설화 녹음시설보강 등을 위한 학교회계 3차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원안 대로 가결했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과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강화의 내용이 포함되는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남해 정사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스승·교도 일심으로 교화발전에 매진하자

서울경인·대구경북교구, 신정회지회와 한자리



서울경인교구(사진 좌)와 대구경북교구(사진 우)가 각 신정회지회 교도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록경 정사)와 대구경북교구(교구장: 법상 정사)가 각각 신정회 지회 임원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경인교구는 지난달 10일 본산 통리원 반야실에서 서울경인신정회(지회장: 박정희) 임원들과 함께 종단발전과 교화발전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신정회지회 임원 25명이 참석해 종단의 당면한 과제와 현안을 공유하고 종단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희 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도들을 대표해 현재 종단의 스승과 재가불자 감소에 따른 종단의 침체화를 극복하고, 전국 신정회지회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중앙신도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교화발전 방안으로 “스승들은 수행뿐만 아니라 자기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건문을 넓히고, 사원에 방문하는 보살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종단의 오세대제도 화도방편을 내세워 스승과 교도가 함께 기본에 충실한 교화에 앞장설 것

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신도회 설립에 대해서는 “활발한 교화활동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교구장 록경 정사는 “교화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종단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특히 연중불사뿐만 아니라 선대스승 추신불사나 신년하례법회 같은 공식행사에도 스승과 교도들이 필히 참석하여 신심을 다지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혜광 정사(시범사 주교) 역시 교화방편에 대해 “스승들이 먼저 나서 한 달에 한 명씩 교화

한다는 목표를 갖고 수행정진에 매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경북교구도 지난달 28일 스승과 대구경북신정회(지회장: 윤복자) 회원들이 합동으로 만나서 관불을 다녔다. 만어사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만어산에 있는 삼국시대 금관가야의 제 1대 수로왕이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 유서 깊은 고찰이다.

교구장 법상 정사는 “한 해 동안 불공하며 용맹정진 해온 스승들과 교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신심을 북돋아 주는 자리로 관불을 마련했다.”면서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게 교화발전을 위해 나서자.”고 전했다.

종립 동해중 제 56주년 개교 기념식 거행

근속 교직원 표창, 대일장학회 장학금 수여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 제 56주년 개교기념식이 기념일인 11월 27일에 앞서 25일 오후 2시부터 학교 해오름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사장 우인 정사를 비롯하여, 송인근 교장, 김진화 교감 등 교사와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부모회 학부형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근속 교직원 표창, 대일장학회 장학금 수여, 이사장 축하 및 교장 기념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사장 우인 정사는 축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을 설교하며, “우리 학교도 학생, 교직원 그리고 모든 동해가족의 연결 속에서 협력과 동료애, 신뢰와 존중, 도전과 변화로 발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전제하고, “이 자리를 빌려 역사 속에서 함께 해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학생들에게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교직원들에게는 “학생들의 인생에 빛을 더해주는 동해인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송인근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지지와 응원으로 56년 동안 본교 졸업생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유능한 지도자 배출로 기여한 공이 크다.”고 밝히며, 학생들을 향해 “성공적인 미래를 동해인으로서는 강한 자부심을 갖자.”고 응원했다.

이날 근속 교직원 표창 수상자와 대일장학회 장학금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근속 30년 교사 김은경, △근속 20년 윤석영 주무관, △근속 10년 서영선 교사 이상 3명 △3학년 박정문 박진근 정승화 △2학년 김시현 이경원 학생 이상 5명.

한편 대일장학회는 동해중학교 전 이사장 인선 정사가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기금 1억원을 기탁해 만들어진 장학회로 설립해인 3년 전부터 매해 5명의 학생들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만추 만끽한 행복여행

석관실버센터, 영월 어르신 나들이

사회복지법인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지난달 9일 강원도 영월로 어르신 총 84명과 함께 ‘가을 찾아 떠나는 행복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가을 나들이는 이용회원 간 친목의 기회를 마련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노년기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영월의 최고 명소 ‘한반도지형’과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범흥사를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느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옐릭)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옐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신통력, 나를 버리는 수행으로 얻어지는 과보이자 공덕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1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4. 불교(佛敎)의 신통력(神通力)

불타시대(佛陀時代)에는 모든 종교의 성자(聖者)들은 기적(奇蹟)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교에도 불타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성자 아라한(阿羅漢)들은 육신통(六神通)을 통달(通達)했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도 빈두로(賓頭盧)와 연화색니(蓮華色尼)의 신통력은 유명했다. 불타가 포교활동을 개시할 당초에 가섭(迦葉)이 제자(弟子)가 된 것은 신통력을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사위성(舍衛城)에서도 불타의 신통력은 발군적(拔群的)이었다. 이상의 사실은 한역(漢譯)과 팔리어 성전(聖典)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또 이러한 기사(記事)가 후세의 가필(加筆)이라고 단정(斷定)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기에 주의할 것은 신통력을 함부로 과시(誇示)하여서는 안 된다는 불타의 지령(指令)이다.

어느 때 사위성(舍衛城)에서 한 사람의 시민(市民)이 긴 죽간(竹竿) 끝에 값비싼 탁발용(托鉢用) 바루를 엮어 놓고 “날아올라 잡는 사람에게 그저 주겠다.”고 선언(宣言)했다. 거기에는 불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교의 수행자가 있었으나 빈두로(賓頭盧)가 신통력으로서 공중에 날아 올라가서 이것을 손으로 잡았다. 이 말을 들은 불타는 빈두로를 매우 꾸짖고 “대중이 보는 앞에서 신통력을 과시하는 것을 엄금(嚴禁)한다.”고 하였다.

대저(大抵) 신통력이란 번뇌가 없이 정신이 통일(統一)된 초능력적(超能力的)인 경지(境地)에서 가능(可能)한 것이며 특히 밀교의 진언지송(眞言持誦)으로서 더욱 가능하지만(취물(取物), 축지(縮地) 등) 그러한 경지까지 정진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밀교의 삼밀행은 반드시 그 진언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므로 지금 근기(根機)가 약한 수행자들 자신이 신통력을 발휘(發揮)하지 못하는 반면, 그 주변의 사물(事物)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총지종(總指宗)의 제반신통묘유(諸般神通妙有) 등)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기적을 바란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적을 동경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이가 있다면 경외시하고 추종한다. 간혹 불가사의한 능력을 보여주는 종교나 무술, 기수련, 혹은 신점 같은 것에 혹하는 것은 그 힘을 빌어 내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경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거나, 부처님과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제자들이 천상과 지옥을 넘나들며 몸을 나누고 독사나 취한 코끼리 등 무시무시한 동물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들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부처님께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신통력을 과시하지 말라고 하신 뜻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중생을 굶어 살피고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면 신통력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랑하는 것은 수행자의 자제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신통력을 접한 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욕망을 여의고 번뇌 망상을 끊어야 하는 불교수행의 기본을 저버리고 신통에 매달리는 맹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수행으로 얻어지는 초인간적인 능력은 여섯 가지라고 한다. 어디든지 날아가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신족통,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천안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아는 타심통, 자신과 타인의 과거 전생을 들여다보는 숙명통, 그리고 번뇌를 완전히 끊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누진통이다.

부처님께서서는 이 중에서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은 외도나 특수한 경험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누진통만은 부처님과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이만이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초인간적이고 신비한 능력이라고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보다 번뇌를 끊고 갈애와 무명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궁극에 가야할 길이라고 일러주신 것이다.

요즘은 기계문명이 발달하여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해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다. 모두가 휴대폰을 펼쳐 전 세계의 소식을 언제든 보고 들을 수 있다. 공간을 초월해 누구와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영상통화까지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족통과 천안통과 천이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디든 갈 수 있다 해도 웬만해서는 기아나 전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에게 달려가지는 않는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미처 보지도 못하고, 보더라도 지나치게 마련이다. 애타는 아우성과 하소연

역시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눈과 귀와 팔다리의 능력이 자유자재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갖기 힘들고,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자비롭게 쓰이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도무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 나에게도 타심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 헛된 상상을 해본다. 거둬 닦지는 불운이나 질기고 질긴 악연 앞에서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자주 이어지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부처님이 계시다면 당장 달려가 얹히고설킨 인연과 숙업에 대해 여쭙고 싶을 때가 정말 많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사유해보면 서운하고 화나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상황 때문만은 아니다. 내 욕심대로 안 돼 화가 나고 내 생각대로 안 돼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 한 겹이라도 그 욕망과 갈애를 벗겨내고 바라보면 뿌옇기만 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문제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다. 스스로를 들여다보노라면 지금도 이렇게 인색하고 성질부리고 꼬였는데 전생에서라고 달랐을까, 짐작도 해본다.

아상을 내려놓아야 타인의 마음도 읽히고 나의 욕심과 갈망도 보인다. 나를 고집하는 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관계와 상황이 주는 메시지와 오랜 업을 읽기는 더더욱 어렵다.

타심통과 숙명통도 이러한데 더구나 번뇌를 모두 끊는 누진통이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모두 벗은 해탈의 경지이니 고행이나 부적이나 귀신의 힘을 빌려 다다를 리 만무하다. 신통력 또한 나를 버리는 수행으로 얻어지는 과보이자 공덕인 것이다.

진언이 되었든 염불이 되었든 절이 되었든 일념으로 하면 당장 얼굴에서부터 내면 깊숙이에서 우러나는 맑고 환한 빛을 띄게 되고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욕심에 찌든 이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면모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고마운 인연을 만나 좋은 길을 안내받고, 하고자 하는 일들과 소망들이 생 각지도 못한 순간, 선선히 이루어진다. 그것이 수행으로 얻은 신통 방통한 가피이겠지만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내가 닦은 만큼 기어코 돌아오고야 마는 과보를, 해안이 열린 이들은 당연한 결과로 볼 것이고 여전히 육안으로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고 신통이라고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정각사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정각사)



용맹정진과 실천만이 참된 길이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데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무슨 수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어려울 것 같고, 시작했으니 복이나 지어서 더 잘 살기 위해 불교를 믿는다’ 라고 하시는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처럼 성불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수행의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중생들은 공부한다고 해서 아무나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누구나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이렇게 풀이하여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중생들이 성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불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 사람은 성불할 수 있는 것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억겁이라는 세월이 지난다해도 저절로는 성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말씀은 중생들 자신의 성품 가운데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정진 그리고 참회

불성을 발현하는 길은 기도와 정진, 참회를 부지런히 실천하는 가운데 한 순간에도 헛됨이 없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항상 부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또 참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뒤돌아 보고, 매일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불보살의 도움으로 화를 줄이고 복을 더할 것을 비는 종교심이요, 정진은 부지런히 선을 향한 활동이며, 참회는 죄를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용서를 청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인과의 정리입니다. 그러니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심지 않고 남이 심을 것을 빼앗으려 해서도 안됩니다.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 합니다. 뿌려야만 거둘 수 있고 더 많이 뿌릴수록 노력한다면 탐스러운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곳에는 성공이라는 꽃이 필 수 없는 것이고 행복의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있고 위대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노력의 대가이며 땀의 결과입니다. 이러니 노력없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허망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술한 화제와 사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도박촌으로 바뀌고 한탕과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땀을 흘리지 않고 행복을 얻으려 하는 것은,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예금통장에 잔금없이 돈달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따려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방법으로 도둑질 말고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노력 없이 남의 물건을 갖는 것을 큰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사분율』에 보면,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마라. 만약에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진다면 바라이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사회에서 격리시켜 감옥에 보내지요. 이러니 인생이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일하며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은 결코 쉽게 노력 없이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모든 성공의 길잡이

노력은 모든 성공의 길잡이입니다. 일하는, 즉 노력하는 즐거움은 인간 생활에서 무엇보다 신성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시간은 무엇인가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때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일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을 달성했을 때는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아는 것만큼 실천하고 수행해서 지혜를 체득하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 일없이 놀기만 한다면 참다운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백장선사는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 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의 제자들이 스승이 그 노구에도 일하는 것이 하도 민망해서 호미를 감추어 버리자 스님은 하루를 먹지 않고 굶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강철 왕인 카네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힘껏 노력하면 광명이 발견된다는 좌우명으로 살면서 부와 명성을 함께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 그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의 성불은 수행정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은 밭을 가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천만 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 꾸준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는 성공의 꽃이 필 수 없고, 행복의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누가 도와준다거나 외부적인 조건보다 스스로의 노력인 것입니다. 성공의 길에 기적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자기의 현재도 잃는 것이요, 미래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행이나 바라는 사람은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됩니다.

천 가지 만 가지의 이론을 모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고 밥을 먹는 행위, 즉 실천이 없다면 그는 배고픔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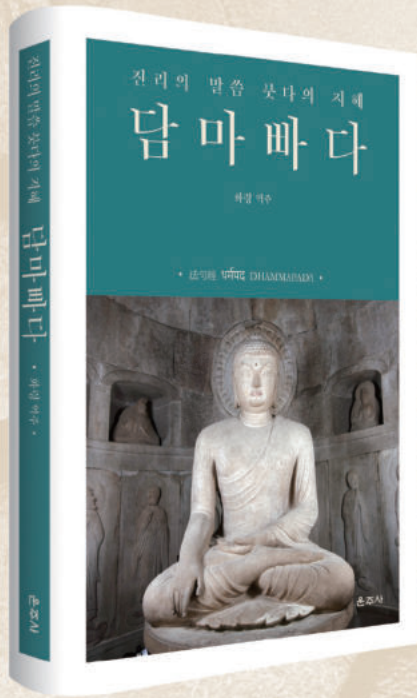
불교의 가르침은 중생의 모든 고통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밝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번뇌해탈로써 행복한 삶의 성취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는 것으로만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천은 중요한 일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림속의 떡을 아무리 쳐다봐도 배가 부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은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불교는 아는 것만큼 실천하고 수행해서 지혜를 체득하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우고 익혀서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말씀 드리면서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용맹정진 하셔서 해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30년 12월 「지상 설법」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 리 의 말 씀 붓 다 의 지 혜

담 마 빠 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한국불교 분쟁의 시대, 밀교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26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진리만을 보기에다 버거운 것이 짧은 인생의 일이니, 부질없는 잠에 크게 마음 쓰지 말라.”

진각종은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안팎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교세도 뻗어 나가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는 비구와 대처의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과 분란을 겪고 있던 때였다. 평화와 왜색 탈피를 내세우면서 시작된 일이지만 대중들에게는 절 뺏기와 폭력 사태가 두드러져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전해졌다.

그 첫 출발은 불교 내부의 고민과 수행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 손님과 함께 서울 정릉 절에 방문했는데, 사찰에 널린 기저귀와 속가의 옷, 그리고 일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한 일제 잔재의 글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대처는 일제의 잔재이니 사찰에서 몰아내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다. 이에 당시 소수였던 비구승들이 권력의 지지를 받고 대처 측과 사찰 분배를 두고 혐의했으나 대처승들의 거절로 견잡을 수 없는 분쟁으로 번지게 된다. 종교의 평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가르침은 때때로 시대에 따라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으며 그 안에 몸담은 이들이 반드시 청정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종교개혁과 새로운 교단의 출현은 그런 평화의 노력이 담겨 있다.



1960년 대 진각종 스승들과 함께

하지만 그 실천과 방법의 모색이 종교적인 길을 벗어날 때 진리를 더럽히는 거짓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된 대처승 몰아내기가 전국 사찰에서 벌어졌다. 대처 측도 타협과 관용을 외면하고 절 지키기에만 몰입했다. 그러나 공권력을 등에 업은 상대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 시대의 추세였다.

당시 소수였던 비구승들은 세 불리기를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세력을 넓혔다. 수행과 계율의 청정은 뒷전의 일이 됐다. 무조건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서, 출신을 가리지 않고 자기편 만들기에 나섰다. 이후 한국불교 분쟁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폭력 사태는 이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대성사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불교의 제 1교리가 다른 아닌 불살계(不殺戒), 즉 그 어떤 생명이거나 심지어 자신의 마음에서마저 폭력을 일으키지 말라는 비폭력이 행동의 필수적인 규범

이며, 수행자는 사생의 자부로서 일체를 자비로 대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평화를 명목으로 곳곳에서 폭력이 춤추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현 옷을 누가 빼앗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에 맞게 가르침과 실행으로 세상에 본을 보일 모범이 필요했다. 수단이 잘못되면 목적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당시의 현실은 밀교야말로 새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자비 교단이라는 불교에서 무자비한 일들이 줄을 잇고, 심지어 수행자의 폭력과 자해행위가 호법의 가면을 쓰고 벌어졌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세상은 불교 교단의 평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 뺏기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부처님 가사장삼을 입고 폭력이 벌어지는 일은 시대의 비극이다.

불교를 보는 세상의 시선은 냉소로 변해

가고 있었다. 수행자를 폭력을 앞세우는 이들로 보고, 불법은 잣밥 차지하기로 보는 차가운 눈길이 몰려왔다. 그와는 확실히 다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커졌다. 이전과 다른 불교가 여기에 있었다. 누구나 생활이 수행이 되고 생활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는 가르침이 있다는 소식은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대립이 아니라 조화이며, 폭력이 아니라 안과 밖의 평가가 있는 가르침을 밀교를 통해 드러낸 것은 대성사의 한결같은 신념의 결과였다.

대성사는 대소승과 다양한 종파, 복잡한 수행의 단계에서 왜 밀교가 가장 높고 궁극적인 가르침인지를 이렇게 밝혔다.

“밀교는 최상승(最上承) 또는 금강승(金剛乘)이다. 완전히 조화를 이룬 세계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실현이다. 본능에만 따르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동물적인 생활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생활에서부터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행동하는 단계를 거

쳐 인간의 의식과 자연현상을 되짚어 절대 조화에 도달하는 것이 밀교이다. 그러므로 밀교에는 가장 낮은 욕망과 가장 높고 거룩한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가진 곳에 있으면서 전체가 일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악기로 치면 대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날날이 따져 들으면 잡음이나 조화롭지 못한 소리가 들려도 일체가 오케스트라의 요소인 것이다.”

혹 교도나 세상 사람이 비구·대처 분쟁을 벌임로 불법을 낮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대성사는 이 같은 말로 조용히 타일렀다. 현실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더라도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추라고 당부했다. 진리만을 보기에다 버거운 것이 짧은 인생의 일이니, 부질없는 잠에 크게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다.

기성 승단의 불협화음을 들으면서 밀교에 대한 대성사의 믿음은 더 굳어갔다. 홀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수행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경전 내용과 의례를 찾고 펼쳐 보였으며 스스로 생활 속에서 드러내 보이니 교단 안에서 신임은 깊어졌고 교도들이 대성사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바가 더 커지고 있었다.

대성사는 법문을 할 때나 심인당에서 교인을 대할 때, 경전을 번역할 때도 한결같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진실된 말이 아니면 입에 담지 않았으나, 늘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았다. 상대를 꿰뚫는 강한 눈빛에 처음 보는 이들이 모두 굳었으나 한두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빙그레 웃는 모습에 대성사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고 했다.

어린 사람이나 나이든 이를 똑같은 자세로 대하였다.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나이든 이들이 혹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그가 알아 들을 때까지 진심을 다해 말을 이어갔다. 같은 질문을 수없이 해도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나라의 동량 양성...한국불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총지종의 역사

제2부 밀법 홍포의 대원을 계승·발전(1980년~1994년)
02.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대중 결으로 더 가까이

종립유치원 건립

원정 대성사는 종교의 역할이 정신문화의 계에도 있지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육영사업에 대한 대성사의 유지를 받들 어 총본산 총지사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1,086㎡ 규모의 유치원 건물을 신축했다. 1983년 4월 4일 종립 한마음유치원 현판식을 거행하고 4월 13일 종의회에서 유치원 건설을 계기로 향후 초·중·고 및 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했다. 11월 29일 한마음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확정하고 원장과 임원을 선출하여 불교이념으로써 지혜롭고 건강한 어린이들을 기를 준비를 마쳤다.

한마음유치원은 1984년 3월 12일 60명의 정원으로 개원하여 한때 120명의 원아를 돌볼 정도로 지역보육시설의 모범이자 인기 있는 유치원으로 성장했다. 1991년 7월 원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마음유치원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등 총지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마음유치원은 정부 차원의 보육시설 확대에 인한 환경변화와 중무행정 공간 확충의 필요에 따라 1997년 폐원했다. 이후 종단의 보육사업은 1999년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으로 발전했다.

동해중학교 인수

종단의 육영사업은 중등학교로 이어졌다. 1988년 6월 27일 임시 원의회 및 임시 재단 이사회에서 종립학교를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곧바로 강남구 역삼동 788-2, 3의 대지를 매각하여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에 소

재한 동해중학교를 인수했다. 학교법인 대동학원을 설립한 후 1989년 3월 4일 1대 이사장에 목정 종령, 이사에 효강 정사, 수성 정사가 취임했다.

가장 먼저 운동장을 확장하고 컴퓨터실을 비롯한 교실과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등 학습시설과 교육용 기자재 개선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불법을 생활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와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지도자가 되자’는 교훈 아래 국가인재 양성에 매진했다.

1992년 EBS교육방송에 소집단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혁신사례가 방영되고 1993년 동래교육청으로부터 교수학습방법 개선 전 교과 시범학교로 지정되는 등 인성 교육과 창의력 교육에 두각을 나타냈다.

학교교육을 통해 관세음보살의 이타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던 대성사의 유지를 받들어 2001년 법인명을 학교법인 관음학사로 변경했다. 종단에서는 매년 개교기념일과 졸업식을 기해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별도로 부산경남교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종단과 교도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아래 동해중학교는 모범적인 불교종립학교이자 명문사학으로서 내실 있게 성장해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가입

정통·정법의 밀교사상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종단은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 6월 15일, 불교 발전을 위해 여러 불교 종단이 교류·협력하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약칭 종단협)에 가입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여타



종립 한마음유치원이 1984년 3월 12일 60명의 정원으로 개원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보육시설 확대에 1997년 폐원했으며, 현재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1988년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에 소재한 동해중학교를 인수했다. 동해중학교는 모범적인 불교종립학교이자 명문사학으로서 내실 있게 성장해오고 있다.

종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사회적 활동을 전개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WFB)가 주최하는 세계불교도대회를 비롯하여 한강 연등대법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국제종교학술회의, 정각회 법회 등의 연합행사에 동참하고 각 종단의 주요 행사에 참석하여 교류의 폭을 넓혔다. 1993년부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과 여의도에서 종로에 이르는 제등행렬에 종단의 스승과 서울경인교구 교도들이 참여하여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일반 시민들에게 종단을 알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활동은 출가 중심의 불교계에 재가 종단의 존재와 활동상을 홍보하고, 정통밀교종단, 생활불교 재가종단

으로서 총지종의 이념과 가치를 천명하는 발판이 되었다. 종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그 공로와 역할은 갈수록 높아져 2017년부터는 부회장 종단으로서 종단협을 이끌게 되었다.

종단은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한 대전세계박람회에 종교계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108개 나라와 3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산업, 경제, 과학기술, 학술, 문화 관련 전시회에서 불교계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불교관을 운영했다. 각 종단의 특색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 불서를 보급하는 불교관에 총지종은 첫날인 9월 26일 음악 공연과 철야정진을 선

보였다.

만보사 합창단의 합창과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으로 만보사 주교 총지화 전수의 법문, 효강 통리원장의 염송 시연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법문사, 만보사, 흥국사, 혜정사, 성화사의 청년회와 신정회가 삼밀의례 불공정진을 올려 종단의 수행법을 생생하게 전했다. 이와 함께 만보사 주관으로 불교전통음식시연회를 개최해 관람객으로부터 큰 인기와 호응을 얻었다. 대규모 국제행사에서의 밀교수행법을 선보이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종단의 대외적인 역량을 과시하고 교도 스스로도 전법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나란다사 최후의 아사리 지공

‘법 밖에 또 바른 법이 있구나.’
밀교 아사리로 현밀검수 전통 계승

『동문선』 119권에는 지공의 <부도명(浮圖銘)>이 있어 지공의 생전 행적을 전한다. 선가는 지공을 서천 108대조사로 기록하고 있지만 서구 학자들은 지공을 밀교 아사리로 기록·간주하기도 한다. 지공의 인도 이름은 드야나바드라(禪賢, dhyānabhadra, 1289-1363)로 그는 인도 나란다사 최후의 인물이었다. 기록을 요약하면 지공은 1289년 마가다국 만왕(滿王)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8세에 나란다에 출가해 율현(律賢, Vinayabhadra)으로 부터 배웠다. 스승의 권유로 19세 스리랑카를 방문하였고 길상산 보명(普明)을 참배하고 의발을 받았다. 1324년 티벳을 거쳐 원을 방문하였다. 원의 대부대감 찰첩목아(察帖木兒)의 부인이 고려인이었는데 지공에게 출가하여 수도인 연경에 절을 세워 법원사(法源寺)라 하였다.

지공은 고려를 방문하여 원과 고려 양국을 왕래하였고, 외교관계에 개입해 고려를 옹호하였다. 1328년 지공은 인도 나란

다사를 본파 회암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주목(楊州牧) ‘불우조’에는, “1174년 금나라 사신이 왔는데 춘천 길을 따라 회암사로 맞아들였다.”라는 기록과 보우 선사의 비문에 “13세의 나이로 회암사 광지선사로 출가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 회암사는 작은 규모 사찰로 지공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다른 기록은, “지공이 여기 와서 말하기를 산수 형세가 완전히 천축국 나란타 절과 같다.”라고 하였고, 나옹화상이 중창 불사를 비롯해 조선조 왕들도 귀의하면서 266칸의 큰 사찰이 되었고, 한때 절의 승려 수가 3,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회암사는 문정왕후가 깊이 신임한 허응당 보우의 중창도 있었으나, 문정왕후의 죽음 후 거센 유생들에 의해 보우의 죽음과 함께 불타 사라졌다.

또한 광주의 토호 이응준에 의해 지공과 나옹, 무학의 부도마저 파괴되고 말았는데,

당시 풍수사들은 절과 부도 터에 묘지와 묘역을 세우면 크게 길한다 하여 많은 절들이 파괴되어 서원 터나 양반의 무덤으로 변한 일들이 많았다. 지금도 서원 터 마당 한 가운데를 파보면 파괴된 절터의 불구와 유물들이 발굴되는 것은 그런 이유다. 훗날 이응준은 7년 뒤 순조 8년(1828) 발각되어 유배를 가게 된다.

지공은 원 순제 지정 23(1363)년 임직하였다. 지공이 임직한 이듬해 그를 흡모한 황실에 의해 시신을 향, 옷, 진흙, 배로 처리하여 등신불을 조성하였다가 5년 후 화장되어 달예(達叡)에 의해 일부가 고려로 전해졌다. 나옹 혜근(1320-1376)은 1372년(공민왕 21) 회암사 부도를 세웠고, 혜근의 제자인 무학 자초(1327-1405)도 화장사에 부도를 세웠다.

지공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범어사에 소장 중인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4호 『지공직지(指空直指)』로 이 책은 연경의 법원사에서 판각, 출판하였으나 조선 성종 6년 광양 백운산 백운암에서 중각하였다. 전반부는 지공을 선사로서 서천 법맥 108대손임을 밝히는 것과 후반부는 각안(覺岸)의 <서>를 비롯한 범문집이 담겨있



오불관

다. 이외 두 권의 『문수사리무생계경』과 『선요록』도 전한다.

지공을 밀교 아사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란다사 출신으로 마지막 학생으로서 현밀검수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지공은 만년에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속인의 사치스런 옷을 입었다고 하였다. 부도를 모신 화장사에 지공의 좌상이 있는데 지공이 쓰고 있는 보관은 밀교 아사리의 오불관임을 알 수 있다. 진영 오불관 중앙의 불탑은 비로자나 대일여래의 삼매야형을 상징한다.

동문선 권 119 <부도명>에는 지공의 행적에 대해, “가라나국도 외도를 신앙하였다. 그곳 왕이 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내가 『대장엄공덕보왕경(大莊嚴功德寶王經)』 「마혜사라왕인지품(摩醯莎羅王因地品)」을 보여 주었더니 왕이 말하기를, ‘법 밖에 또 바른 법이 있구나.’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지공이 티벳과 중앙아시아를 경유할 당시 인도는 불교와 외도가 뒤섞여 있었고, 지공이 원과 고려를 왕래할 당시 밀교는 전멸하고 선이 득세하여 불교는 주로 선에 의해 왕실과 대중을 가르쳤지만 기록들은 지공에 대해서는 주술과 밀교에 능한 스님으로 평가하였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영역원
정성준 연구원

한중일불교우호교류학술대회

4차 산업시대 불법홍포를 위한 삼국불교도의 역할



1. 불교의 역사적 특징

많은 불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불교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의 종교였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성격을 들고 있는데 먼저 차별적인 모든 제도의 타파이고, 두 번째는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먼저 차별적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신분제도도 이 제도는 인류 문명의 초창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는 2500년 전에 신분제도의 타파를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제도적 차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승단 내에서는 신분적 차별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신분적 차별에 대한 부정은 다른 종교에서도 보이지만 여성에게 종교적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파격은 불교가 유일합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불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짓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무신론적 입장입니다. 우리의 외부에 신을 설정하게 되면 인간은 그 신의 종속적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외부이 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외부에 절

대신을 두지않는다는 것은 어떤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중시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현실을 중시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2. 동아시아 불교의 종합적 성격

한중일 세 나라가 속해있는 동아시아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질적인 두 문명이 불교를 매개로 융합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중국인들은 먼저 방대한 경전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활동은 인류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활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단 중국의 사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를 격의불교(格義佛敎)라고 하고 다음 단계는 경전의 내용을 수미일관하게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상판석(敎相判釋)이란 경전이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중국이라는 토양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후 중국화된 불교로 선종(禪宗)이 등장한 것이죠. 중국에서 성립한 이 새로운 불교는 동아시아의 여러나라들에 전파

되어 동아시아 문명권을 다른 문명권과 구분짓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3. 불교의 보편성

본래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정복과 동반하여 전파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동아시아 불교는 매우 개방적인 성격의 종교였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에는 그리스 문명과 인도 문명, 그리고 중국문명의 내용이 종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특징 하나는 신상(神像)조각인데 인간 신체의 이상적인 특징을 신상조각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에는 인도와 중국과 그리스 문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사회가 성립하는 동력으로 최근에는 과학혁명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과학의 발전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인문학과 사회과학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말하는 내용은 기존의 서구사상으로는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 과학이 발견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 불교에서 담겨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이로써 불교는 근대 이후의 서양의 과학혁명의 내용까지 담겨집니다. 불교는 어쩌면 현존하는 모든 종교와 사상 체계중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사회의 기구 위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 근대의 개인을 전제로 한 계몽주의적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즉 개별적 존재를 전제하고 그 존재와 존재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존재와 관계를 선후(先後)의 개념으로 보는 세계관을 넘어서는 관점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빅뱅은 이 우주가 탄생하는 처음부터 관계(關係)가 본질이었음을 말해주

고 있습니다. 세계의 실상을 관계론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종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관계론적 세계관을 불교적 용어로 치환하면 연기론(緣起論)적 세계관이 됩니다. 모든 사물이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로 서로 얽혀있다는 불교의 주장은 어쩌면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세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공진화(共進化)도 연기(緣起)라는 용어로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이 말하는 관계론적 세계관의 오래된 버전이 바로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은 아닐까요?

4. 현대사회에서의 한중일 불교의 역할

근대이전에 불교가 이슬람의 침략으로 인도에서 소멸하였다면 근대이후에는 서구 제국주의 침략으로 위축되어 왔습니다. 세계종교라고 불리는 종교 중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정복 전쟁을 통해 교세를 확대한 특징이 있다면 불교는 오히려 침략을 통해 그 교세가 위축된 종교입니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공통성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삼국의 이질화(異質化)를 극복하고 공존 공생의 관계를 회복할 매개물로 불교를 떠올리게 됩니다. 불교는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교리적 측면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비켜서서 문화적 종교적 교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지닌 인간 중심이 아닌 못 생명을 아우르는 생명 존중의 사상, 종교를 이유로 전쟁을 벌이지 않은 거의 유일한 종교, 청빈(淸貧) 내지 무소유와 같은 욕망 절제의 가르침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오염의 극복, 그리고 명상과 같은 특징들은 현대사회에서 불

교의 역할을 기대하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불교를 공통분모로 하는 동아시아 삼국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의 불교루트를 복원하여 평화적인 토대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불해(不害, ahimsa)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공생(共生)의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남이 별개로 나뉘지 않는다는 불이(不二)의 세계관, 연기론적 세계관을 내세웁니다. 자(慈)는 연대(連帶)의 의미를, 비(悲)는 공감의 의미를 말합니다. 불교는 동아시아라는 지역 내의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구 위기는 결국 인간의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출발하여야만 합니다. 채식은 생명존중의 의미를 일상에서 드러내는 행위이고 잔혹한 공장식 축산을 줄이고 마칩내는 없앨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주도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보다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찾던 사람들이 불교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불교의 역할이 불교의 내부에서 먼저 발현되었다기보다는 세계인들이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넘어설 대안을 모색하다가 불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동적이지만 이러한 흐름은 특히 한중일 불교도들에게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지신문 김태원 칼럼니스트



총지종 입교는 모두의 축복 <하>

건화사 지종영 교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모택과 가까운 아파트에 살림을 차리고, 조금 떨어진 윗마을 2층 주택에 살고계시는 이모를 자주 찾아뵙게 되고, 실행담과 세상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으며 흐뭇한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늘 인사하시고 잔잔한 미소로 육자대명왕진언 움마니반메움을 지송하시며 불교가 생활이고 생활이 불교라고 실천해보라 당부하셨습니다. 이모는 건강하게 장수하시며 평온한 삶을 누리시다가 93세를 일기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모아서 49재를 올렸습니다. 은혜와 감사로 아미타극락세계 왕생성불을 기원하였습니다. 이미 가족제도를 하셔서 며느리가 이어받고, 친정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동기간들과 딸 두 명도 총지종에 인연을 맺었으며 지금까지 3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총지종은 한가정의 생활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옛일을 잠시 더듬어 초창기 정각사의 역사적인 순간을 회상해 보려합니다. 1983년 5월 결혼과 동시에 정각사의 인연을 맺게 되어 실제로 보고 느낀 점입니다. 40년 전 결혼을 하니 남편도 시댁 어른들도 밀교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전생에도 함께 수행한 도반으로 인연이 깊었는지 친정이나 시댁식구들이 밀교의 한울타리 속으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절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냥 따라만 다녔습니다. 젊은 날에는 미약한 신심으로 깊은 수행이 없이 왔다갔다만 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정각사는 항상 신도들로 넘쳤습니다. 작은 주택의 2층 기도실이 좁아서 조금 아래 넓은 터에 새로 큰절을 짓고 원정 종조님께서는 “이 절은 세세생생 허물지 말고 부처님진리를 펼쳐나가라. 이 땅에서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날 것이다.”며 새 사원의 완공을 축원하셨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언밀교의 가르침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금정구 동래구를 넘어서 부산전역
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총지종 태동
의 시대 기도의 기운과 설법은 사람들의 마

음을 움직이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도는 나날이 더 늘어나고 구름처럼 몰려들어 오전 공식시간 불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초만 원을 이루어 늦으면 서원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에, 마당에, 화상실 옆에서 대문에 이르기까지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죽비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서원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매일 일찍, 더 일찍 달려가면 어느새 새벽부터 온 신도들로 가득차서 염송하고 정진하느라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열심히 기도하는 수행실전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둘러 달려와서 서원당 안으로 들어가 좌정을 하지만 앞뒤로 바짝 붙어 앉아서 답답한 마음에 시간이 끝나기를 참으며 기다려야만 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그곳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해안을 가
진 큰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뵈기
위해서 법회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
다투어 줄을 서서 기다리며 마음속에 질
문을 되뇌이곤 하였다는 보살님들의 말
씀을 수없이 들었던 시간 속에 우리는 몇
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각사는 불
교계를 진동시키며 밀교의 깃발을 드높이
올렸습니다.

새로 지은 사원도 차고 넘쳐서 여러 사
원을 늘려가며 지역별로
신도를 나누어 현존하는
많은 사원의 현판을 걸었
습니다. 부산 불교계의 신
화가 되고 전설이 되어간
우리 정각사의 역사를 되
새겨보았습니다.

창	교
호	
지	

보살대중의 입에서 입
으로 전해지면서 화자가
되었던 우리의 밀교도량
은 다시 새롭게 충고를 올
려 지어서 현존하는 모습
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
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만하여
도 생기가 일어나고 감회
로 가득합니다. 스승님들
과 보살님들의 끊임없이

이어진 옹병정진 속에서 먹어보고 맛을 알
며 깊은 동굴 속에도 들어가보고 넓은 바
다를 헤엄치면서 선정을 향해 좌복 위에서
잠잠 앓고 하루 종일 앓아 있었던 그때를
선배보살님들은 증득한 체험이야기라며
자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요즘도 노보살
님들께서 가끔씩 보석 같은 수행담을 전해
주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염송으로 이겨
내며 부드럽고 평온한 마음과 기쁨을 얻
어서 가정의 화목과 발전을 이루어나갔
는 총지종 밀교수행을 찬탄하면서 제도
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총지종을 향한 애
종심으로 가득찬 보살님들이 각 사원을 지
키며 발전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
다.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용매정진을 향한
염주를 잡아봅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묵
서 다시금 심지를 돋우어 촛불을 밝혀들어
세상을 비추이기를 기도합니다.

어언 40년을 총지종 진언밀교와 인연이 되어 참회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아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스승님들과 배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아름다운 불보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수행정진하기를 서원해봅니다. 성도합시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창	교	절		수	미	상	관		가
호		임			지		포	석	정
지		배	산	임	수		지		주
	후	추				불	교	학	부
소	회		감	응	신	호		점	
	막					령		은	
허	심	탄	회					행	
물		산		돈		중	생	제	도
불		소		오	대	양			매
공	사	다	망			절	세	미	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0월 21일 ~ 11월 20일까지

불교종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귀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10/23	10,000	동해사	김진화	11/7	10,000	시법사	이수영	11/12	20,000	정각사	노점호	11/9	10,000		
	김동운	10/27	30,000		송인근	11/20	10,000		실보사	서령	11/9		10,000	안한수	11/5	10,000	
	보명심	11/14	10,000		강명순	10/31	10,000			혜원정	11/9		10,000	제석사	이진승	10/31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10/23	20,000	만보사	홍도열	11/7	10,000	실보사	박성호	11/15	1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11/2	80,000		
	수증원	10/23	10,000		이종구	11/13	7,000		이순옥	11/15	10,000		총지사	록경	10/24	20,000	
	밀공정	10/23	10,000		김정희	11/20	10,000		실지사	황성녀	11/1			10,000	백귀임	11/10	10,000
	선도원	10/23	10,000		밀인사	덕광	11/10	20,000		유승우	11/6	10,000		최영아	11/10	10,000	
	법지원	10/23	10,000	법천사	반야심	10/31	10,000	이도현		11/6	10,000	김정환		11/12	10,000		
	일성해	10/23	10,000	법황사	인선	10/23	10,000	이서현		11/6	10,000	유은혁		11/14	10,000		
	사홍화	10/23	10,000		정계월	10/23	10,000	이루나		11/6	10,000	신현태	11/18	10,000			
	안주화	10/23	10,000		박미경	10/25	10,000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10/25	80,000	록경	11/20	20,000			
	진일심	10/23	10,000	벽룡사	승원	10/23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10/27	80,000	통리원	김영석	11/15	10,000	
	시각화	10/23	10,000		묘원화	10/23	10,000			운천사	무명씨	10/24		10,000	무명씨	10/27	30,000
	최상관	10/23	10,000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11/2	8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10/24	80,000	화음사	박대성	10/27	10,000		
	연등원	10/23	10,000		하명순	10/25	10,000		연명구	10/26	10,000		무명씨	10/31	10,000		
	자선화	10/23	10,000	사원명무기명	강숙자	11/5	10,000		구미자	10/31	10,000		강동화	11/1	10,000		
	승효제	10/23	10,000		강태관	11/9	50,000	자석사	도우	11/6	10,000		박옥자	11/6	10,000		
	주신제	10/23	10,000		박필남	11/15	10,000		지현	11/6	10,000		무명씨	11/16	10,000		
	해정	10/25	10,000		나석원	10/25	50,000	김선희	10/26	80,000	손태광	11/18	20,000				
	단음사	신말심	11/13	2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박현정	10/25	2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정각사	김점남	10/31	2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11/10	80,000
		장정숙	11/13	10,000		정윤영	10/25	10,000									
	단향사	지홍	11/16	10,000	세곡키움센터	김경희	10/31	20,000	정각사	탁상달	11/8	1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김라은	11/16	10,000		수인사	법상	11/14					20,000	기로스승	총지화	11/20	20,000
덕화사	법상인	11/14	20,000	시법사	혜광	11/12	10,000	정각사	탁상달	11/8	10,000	관성사	우인	11/20	100,000		
동해사	법선	10/23	10,000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②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삼계화택의 비유가 현실이 되다

비유하면 어떤장자 크나큰집 가졌으나
그큰집은 오래되어 퇴락하고 낡았으며
집채마루 위태롭고 기둥뿌리 썩어들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축대마저 무너지며
담과벽이 헐리우고 흙덩이가 떨어지고
지붕씩어 내려앉고 서까래도 부러지고
막혀버린 골목에는 오물만이 가득하며
그가운데 오백식구 오밀조밀 살고있네
(중략)

이와같이 낡은집이 한사람의 소유더니
그사람이 외출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그런뒤에 그집에서 갑작스레 불이 나서
사면응로 한꺼번에 맹렬하게 타오르니
대들보와 서까래와 많고많은 기둥들이
불길속에 튀는소리 벼락치듯 진동하고
꺼져지고 부러지고 담과벽이 무너지네
(중략)

바로이때 그집주인 대문밖에 서있는데
어떤이가 말하기를 당신여러 자식들이
장난질을 좋아하여 그집속에 갇혀있고
어린것들 소견없어 놀이에만 빠져있소
그장자는 이말듣고 불타는집 뛰어들어
방편으로 건져내어 불타죽게 안하려고
여러자식 타이르며 많은환난 설명하되

『묘법연화경』 2권 <비유품>에 나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생
들이 번뇌의 불길에 쌓여있는 것을 곧
무너지고 위험한 불타는 집에 살면서
도 놀이에 빠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
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지 않는 철없는
아이들에 비유한 <삼계화택>의 비유
입니다. 다행이 아버지는 아이들이 좋
아하는 말 장난감을 준다는 말로 유인
하여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해피엔딩
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
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가열화로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폭염과 폭우와 폭설과 가
뭄과 홍수와 산불로 재난이 끊임이 없

고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
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학자
들은 지구상에 새로운 지질대가 발생
했고,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다
고 말합니다.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생태계 파
괴로 인해 기후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됐
다. 현재 기후변화 현상이 진행 중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구 온
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최악의 상황
을 회피할 여지는 남아있다”며 회원국
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IPCC)가 2023년 3월 20일 내놓은
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각국 정부가 현
재 진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모
두 실행하더라도 2040년 이전에 지구
의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
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습니
다. 1.5도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기후붕괴를 막을 수 있는 티핑포인트
입니다.

이 보고서는 1.5도 제한을 위해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
야 하지만 세계 각국이 세운 감축 목표
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
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
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성
공할 때 비로소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편리함
이라는 즐거움, 경제성장이라는 즐거
움,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즐거움에 빠

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지구는 뜨거워져
서 지구가열화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
상 그런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는 대멸
종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을 생산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
니다. 자연을 인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원
천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터전임
을 자각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가 행
복의 원천이고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
가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돕
고 사랑할 때 더 행복하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대립
하는 사회가 아니라 협력하고 공생하
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경제시스템은 이제 그
만 멈추어야합니다. 생태계 파괴를 통
해 얻어지는 이윤추구를 멈추어야 합
니다. 이미 개발한 것을 잘 유지하고
공유하고 순환하는 균형과 조화를 추
구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만물은 서로 연
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연기의 가르
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불
교계가 앞장서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장자가 놀이에 빠져
불이 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원한 것처럼, 불자들
은 청빈하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행
복한 삶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대멸
종으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생명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불교계가 기후위
기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남해 정사의
위드다르마
With Dharma <6>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인간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기보다는 과
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다.
인간은 누구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기약한
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전 철이 없던 시절
에는 과거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대부
분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철이 들고 난 후부터
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해주지 못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 새해가 되면 무
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희망과 행운이 생길 것 만 같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과거부터 해왔던 습성이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부지기수다.

인간은 기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과거 전
생부터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였던 것을 소 되
새김질하듯 반복해서 행한다.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행했던 모든 것은 아뢰야식에 저장된다.
그리고 아뢰야식에 저장되어진 업은 현재의 나
의 행위에 관여한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현재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봐왔던 것들과 현재
보고 있는 것을 비교분석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그 새로 만들어 낸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고 행
하는 것도 지금 현재의 처한 상황만을 판단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해왔던 말과
행동들 중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고 과거에 그 상황에서 했던 말들과 행동
들을 비교분석해서 말하고 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논하기 전에 과거를 먼
져 되돌아봐야 한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는지, 과
거에 나는 어떻게 말해왔고, 행동해왔고, 생각
해왔는지 소 되새김질하듯 기억해내야 한다. 그
래야 참회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을
νώ우치고 참회할 수 있어야 밝은 미래를 기약하
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지
금까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떠
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 소원을 빌었다면 올해
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작년 한해를 먼
져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윤동주의
시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을 들려주고 싶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 나가겠
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도록
하루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
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
습니다.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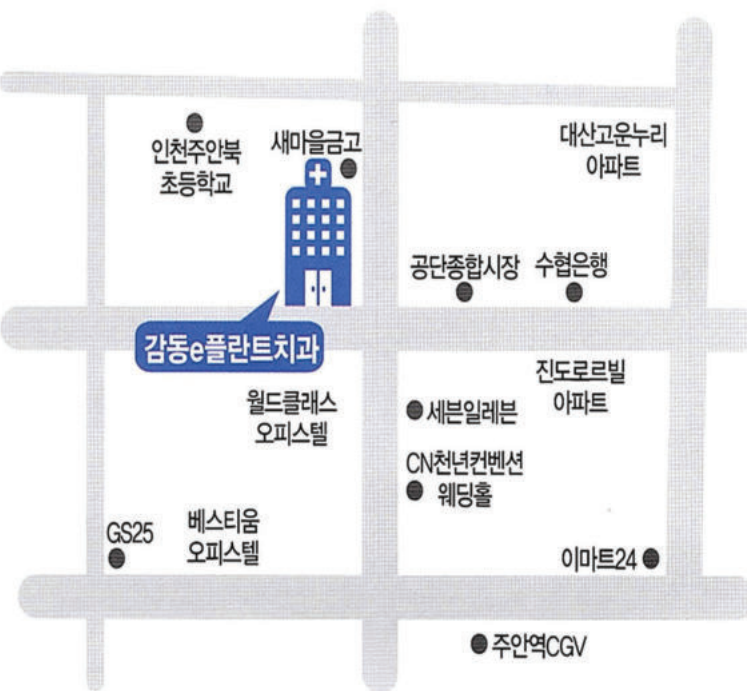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생활 속에서 찬불가 부르며 부처님 뜻 전하다

마니합창단·만다라합창단, 서울과 부산서 무대 올라



제10회 불교 합창 페스티벌에서 합창 중인 마니합창단(왼)과 2023 부산불교합창제 참석한 만다라 합창단원과 정각사 스승

부처님 가르침을 음악에 담아 음성공양으로 법음을 전하는 전국 불교 음악인들의 축제, 제10회 불교 합창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시월의 마지막 날 서울 전통문화 예술공연장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린 이날 페스티벌은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단장: 최해선)을 비롯한 봉은사 불음청년 합창단 등 7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에서 찬불가를 부르며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자 2년을 주기로 마련됐다.

마니합창단은 맨 처음 연주자로 나섰으며, 김양희 지휘자와 이지선

피아노 반주자의 호흡에 맞춰 맑고 서정적인 멜로디에 음을 쌓았다. 염주를 돌리며 부처님 뜻을 알아가는 내용을 담은 덕산 스님 가사에 좋은 벗풍경소리 이종만 대표의 선율이 더해진 신곡 ‘염주 한 알’을 위촉곡으로, 또 “마음구석 짝 차오르네 빈잔을 채우고 세월도 채우고 차를 마시네. 향내 그윽한 감로다”의 가사로 가슴이 절로 따뜻해지는 ‘차를 마시네’ 두 곡을 선사했다.

부산경남교구 만다라합창단(단장: 안미옥)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가 주최한 ‘2023 부산불교합창제’에 참



가해 불심 가득한 하모니로 자비의 울림을 더했다. 지난달 21일 부산회관 중국장에서 열린 합창제는 만다라 합창단을 비롯해 범어사, 영주암 합창단 등 6개 합창단이 참석해 불음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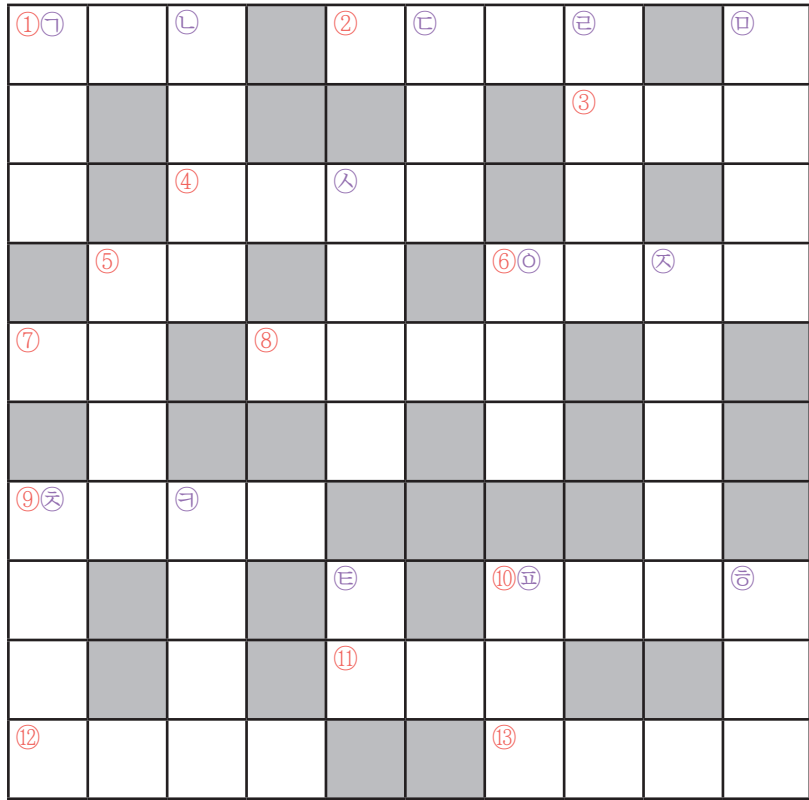
만다라합창단은 비취색 바탕에 크리스탈 빛을 발하는 새로운 단복을 차려 입고, 찬불가 ‘옛님’과 ‘가치산 물소리’를 정각사가 지리한 ‘금정산 물소리’로 개사하여 불렀다. 특히 이

번 공연에는 박윤규 지휘, 김옥희 피아노 반주에 첼로와 바이올린을 더한 연주로 찬불가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범일 정사(정각사 주교)는 “부처님 말씀을 음악에 담아 한마음으로 다 같이 노래하는 공양은 큰 힘을 갖고 널리 울려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찬불가 합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참석자들을 치하했다.

박재원 기자

가로세로 총/지/문/답



가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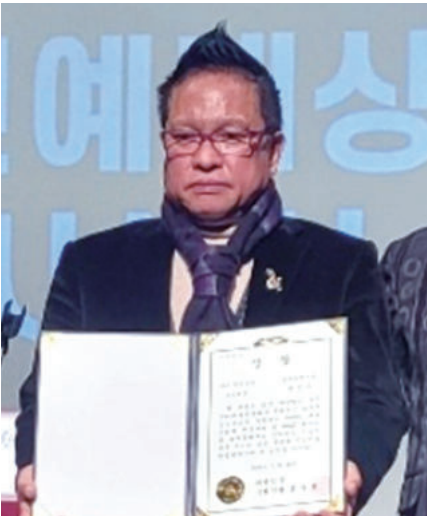
- 양력 12월 24일, 정통밀교 총지종이 입교개종(立敎開宗)한 날
- 문학, 예술 분야에서 처음과 끝을 비슷하게 구성하여 여운을 남기는 기법
- 신라 시대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연회를 행하던 곳으로 경북 경주에 있는 사적 제1호
- 명당의 조건 중 하나로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을 내려다보는 지세를 갖춘 터
- 자극적인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향신료의 한 종류
-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의 본질과 사상 체계 역사 등을 전공하는 학부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 자동차나 보행자의 존재를 감지하여 유동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체계
-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고 솔직함을 뜻하는 말
- 불교에서 부처가 고통 속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게 하는 것
- 지구의 가장 거대한 다섯 바다(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 공적인 일, 사적인 일로 거름이 없을 만큼 바쁨을 뜻하는 말
- 세상에 건줄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세로 열쇠

- 창호에 붙이는 백색의 질긴 종이
- 소금에 절인 배추
-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능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일
- 관중과 포숙의 사귀이라는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꾸러가는 사람, 안주인
- 더할 나위 없이 후회스러움을 뜻하는 말
- 그 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 무척 화난 상태에서 내리는 호되고 급한 명령
- 학교 밖에서도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총지종에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매년 양력 11월 6일부터 49일간 정진하는 참회불공
- 탄산과 나트륨(Na)이 만나서 이루어진 화합물
- 점진적인 과정 없이 단번에 깨닫는 것을 이르는 불교용어
- 중국에서 유래한 명절로 음력 9월 9일, 9가 두 번 겹치는 날
- 생산자와 소매사 사이에서 상품 유통의 중간적 기능을 하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박건우 노래 ‘아리랑 독도’ 대상 영예

운천사 부림합창단 지휘하며 작사·작곡



운천사 부림합창단 지휘자 박건우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부른 노래 ‘아리랑 독도’로 제 23회 독도문화제 전국대회에서 작사·작곡 부문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18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2023 대한민국 복지문화예술 연예대상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씨는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홀야호사'로써 국민대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 원 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통 리 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 련 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 성 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 인 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 천 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 룡 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 법 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 지 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 심 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 인 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 지 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 보 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 황 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 정 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 국 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복길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 원 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 천 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 화 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 광 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 음 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 밀 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 계 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 인 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 천 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 석 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 음 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 향 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 화 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 행 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 성 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 밀 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 화 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 보 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윤 천 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 상 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 석 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 각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2-7901
화 음 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 해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2024

비로자나부처님 자비광명 가득한 갑진년

총기 52년
불기 2568년
서기 2024년
무인년 갑진년

1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202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2월 2024

불교총지종 통리원

2024

甲辰年

총기 53년 / 불기 2569년 / 단기 4357년 / 서기 2024년

불교총지종

총기 53년
불기 2569년
서기 2024년
무인년 갑진년

12

행동이 높으면 천지는
같이 되나니 행함은 공덕을
생기게 하고 공덕은 행함을
더욱 깊게 하느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월 202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1월 2024

불교총지종 통리원

2024 새해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밀교의 세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만다라,
비로자나부처님과 육자진언을 상징하는 육합상,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원정 대성사의 큰 가르침이 담긴
불교총지종의 새해 달력을 벽에 걸어 두시고
대일여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지신력이
원만 구족하시어 소원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문의=홍보실(02.552.1080)